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바쿠닌의혁명적사상

아나키스트사상과운동의창시자중한명, 바쿠닌의사상에대한개
요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바쿠닌의혁명적사상
아나키스트사상과운동의창시자중한명, 바쿠닌의사상에대한개요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I		3
II		5
III		8

분명하게도 바쿠닌은 19 세기의 중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이자 활동가다.

바쿠닌은 그의 친구 피에르-조지 프루동의 연방주의적이고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 사상과 유럽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 아래서 바쿠닌은 아나키즘을 현대적 형태로 다듬었다. 그의 혁명적이고 계급 투쟁에 기초한 아나키즘은 1 인턴셔널당시 아나키즘의 주된 형태가 되었다.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 사회주의와 투쟁했고,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의 근간을 놓았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그의 예견은 사실로 확정되었고, 그의 자본주의, 국가, 종교에 대한 비판은 등장당시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유효하다. 러시아와 스페인 혁명은 그의 혁명에 대한 사상의 힘을 입증했다.

하지만 바쿠닌의 사상은 아나키스트 운동 바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바쿠닌을 혐오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바쿠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의 사상에 대한 이러한 왜곡은 많은 급진주의자들이 바쿠닌을 독해하고 그의 이론의 힘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은 러시아 사람 한 명이 1860 년대와 1870 년대에 하려 했던 말에 관심을 가지는가?

I

바쿠닌의 혁명적 사상은 유물론에 근거한다. 그에게 “사실은 관념에 우선”하며, 관념은 “존재의 물질적 조건에 뿌리 내린 꽃일 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그는 개인의 자유와 그를 위한 평등한 개인 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회의 상을 건설했다. 그는 다른 관념론자들의 추상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그는 참된 자유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평등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떠한 인간도, 그 주변 인간들의 해방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 나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다. 나의 사상적, 물질적 자유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나와 동등한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 위에 공고할 때에만 성립한다.”

바쿠닌에게 “인간은 독자적으로 그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자유는 독자성이 아니라 상호 교류의 산물이다. 자유는 개별성이 아니라 연결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추상적 개인을 숭상할 때 그것은 “자유 의지를 보여주며, 모든 자유의 잔해 위에 권위가 세워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모든 발전은 “그 시작점을 부인하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질적 유물론의 행동에 있어 관념론자들을 발견하고, 유물론자들이 가장 존귀한 관념적 명목과 사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유지상주의” 우파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할 때, 이들이 최대 이익을 위한 “경영권”을 옹호하면서도 도가세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라. 추상적 개인주의는 자유 위에 권위가 서는 것을 정당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자유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자유의 확립으로 귀결한다.”

이는아나키즘이“권위의원칙을거부한다”는것을뜻한다. 엥겔스는바쿠닌이 무슨말을하는지이해하지못했지만, 개념은단순하다. 바쿠닌에게“권위의원칙”은“대중이언제나스스로를통치할수없고, 현명하고정의로운자비로운주인에게 복종해야하며, 어떻게든위로부터명령받아야한다는신학적이고형이상학적이 며정치적인관념”이다. 이원칙대신에바쿠닌은이후“자주경영”이라불리는것을 옹호한다. 이러한조직에서“체제의질서와진보는존재할수없”으며“집단적작업 과행동”을위한“자발적이고사려깊은질서”가자리잡을것이다. 바쿠닌은“이러 한체계에서권력은더이상존재하지않을것이다. 권력은공동체속으로해소될것 이고, 모든이의자유의원표현이, 모든이의의지에대한신실하고성실한실현이 될것이다. 이것이야말로유일하게참된질서이자, 자유의조직에필요한질서”라 고강조한다.

바쿠닌은자유가연결의산물이지독자성의산물이아니라고주장한다. 집단 이스스로를조직하는방식이, 그집단이권위주의적인지자유지주의적인지를 결정한다는것이다. 바쿠닌에게“권위의원칙”은조직이나합의가아닌체제를의 미한다. 바쿠닌은“이것이내가모든권위를거부하는것을의미하는가?”라고묻고 는, 명확하게“아니다. 나는이러한발상을지지하지않는다.”고답한다. 바쿠닌은 권위자(전문가)가되는것과권위를누리는것의차이를인지한다. 바쿠닌은아나 키스트들이“자연스러운권위를인정하고, 사실이우리위에있음을인정하여야하 지만, 그러할권리는인정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는“자연스럽고이성 적이며, 우리가존중하는위대하고전능한권위는평등과연대와상호존중의원칙 위에세워진집체적이고공공적인정신뿐”이라고말한다.

바쿠닌은자유를사랑하고체제를적대했기에국가, 자본주의, 종교를거부한 다. 그의저작『신과국가』에서바쿠닌은무정부주의의필요성을역설한다. “만 약신이존재한다면, 인간은노예에불과하다. 만약인간이자유로워질수있고자유 로워야한다면, 신은존재하지않아야한다.”“신이라는관념은인간의이성과정의 의퇴장을함축한다. 신은이론적이며동시에실천적으로인간자유のが장끔찍한 격하이자인간의예속이다.”그는명시적으로, “만약신이존재한다면, 신을철폐 해야한다.”고언급한다.

바쿠닌은신의권위를반대하는것과동시에더구체적인것역시반대한다. 그는 국가가계급적지배의기구라고주장한다. 국가는“지배계급이대중에대해행사하 는조직된권위, 지배, 권력”이며, “실물적불평등을상정하는힘, 권위, 지배를나 타낸다.”권력의불평등은계급사회의유지에필수적이며, 그렇기에국가는체제 적이고중앙집중적인구조로진화한다. “모든국가권력, 모든통치는본성적으로 그인민외부에, 그리고그위에위치한다. 그리고필연적으로인민을조직에예속시 킴과동시에인민의진정한필요와열망에반하는것을목표로한다.”바쿠닌에게진 정한인민의민주주의국가는불가능한것이였다. 모든국가는“인민이… 그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통치하는소수에게… 복종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III

자본주의를 대체할 이념으로써 바쿠닌의 이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달성을 위해 그가 제시한 방법론 역시 유효하다. 파리코뮌은, 러시아 혁명에서의 노동자 소비에트는, 스페인 내전에서 의 집산주의는 그의 이념을 상당부분 확인해준 사례였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바쿠닌의 비판 역시 옳다고 입증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가 되었고, 볼셰비키는 권위주의자가 되었다. 이는 바쿠닌의 이념이 오늘날에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쿠닌의 이념을 생각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시대에 맞는 이념을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 문헌에서는 논의하지 못한 바쿠닌의 여러 측면들(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이 있다. 유대인과 게르만인들에 대한 그의 편견이나 비밀결사에 대한 열정은 부정적인 측면의 예시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바쿠닌은 중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아나키스트들이 “바쿠닌주의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의 개인적 결함과 실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바쿠닌의 이념의 상당한 부분이 오류임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쿠닌이 아나키스트들의 이론과 실천에 기여한 것의 가치를 저하시키지는 못한다.

아나키스트 연방의 소책자 『바쿠닌 입문』은 바쿠닌의 이념에 대한 훌륭한 소개로, 짧고, 짧은 소개를 제시한다. 바쿠닌의 삶과 이념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찾는 이들은 브라이언 모리스의 『바쿠닌: 자유의 철학』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쿠닌의 사상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비싼) 문서는 리처드 B. 솔트만의 『미하일 바쿠닌의 사회적, 정치적 사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바쿠닌의 저서를 먼저 읽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프리덤 프레스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와 국가』는 훌륭하고, 짧은 모음집이다. 『아나키즘에 대한 바쿠닌의 입장』은 그의 저작을 포괄적으로 모아 두고 있다. 바쿠닌의 고전 『신과 국가』는 여전히 추천할 만하며, 그의 유일한 저서 『국가주의와 아나키』 역시 읽을 가치가 있다. 아나키스트 연대기 『신도 주인도 없다』의 1권은 바쿠닌의 대표적 저작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쿠닌의 자본주의 비판은 프루동의 그것에 근거한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 그 인간성과 자유를 판매”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문서로만 제한하고, 오직 일을 그만둘 권리만을 남겨둔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이행기적인 노예제를 구성한다.” 자본가에게 사유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보장한 힘이자 권리이며, 이를 통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쿠닌에게 자유의 지주의는, 그 논리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경우, 사회주의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오직 단결한 노동, 즉 호혜와 협동의 원칙 위에 조직된 노동만이 문명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합당한 것이다.”

바쿠닌의 억압에 대한 반대는, 단지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바쿠닌은 성 차별에도 반대했으며,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지지했다. 그의 반 제국주의 역시 유명하다. “퇴행적”인민에 대한 제국주의를 지지한 마르크스나 엥겔스와는 달리, 바쿠닌에게 “모든 인민은, 스스로가 될 권리가 있다.”

II

바쿠닌에게 현존 체계에 대한 저항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눈에 자본주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다. 술집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사회 혁명을 일으키거나. 술집에 가면 “몸이 취하고”, 교회에 가면 “정신이 취한다.” 사회 혁명만이 유일하게 참된 희망이며 이것이 그가 제 1 차 인터내셔널에 참여한 이유이자 오늘날의 조건을 개선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써 집단적, 조직적 계급 투쟁을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적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과 농민을 하나의 예비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를 예견했다. 그는 아나키스트들이 “국가의 군경을 부술 수 있을 만한 인민의 세력을 건설할 수 있는” 노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의 사상에서 파업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바쿠닌에게 파업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전쟁의 시작점”이며, 대중들에게 “부르주아지와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본질적으로 대립한다는 감정을 일깨운다.” 또한 파업은 “연대라는 사실”을 확립하기도 한다. 파업은 “부르주아지와 국가의 권력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세계의 토양을 놓을 수 있는 노동자의 군대를 건설하고, 조직하고, 구성”한다. 바쿠닌은 총파업을 지지했다. 총파업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고 있는 해방적 사상과 함께 한다면, 사회가 그 구태를 벗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대변혁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바쿠닌은 1 차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다투었다. 바쿠닌은 여러 이유로 마르크스를 반대했다. 그는 급진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노동자들이노동자대표단을입법의회에보낼때, 노동자대표단은부르주아적환경에익숙되어노동자를배신하고국가가구가, 부르주아가될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사회민주주의가개혁주의, 기회주의로전락한것을보라. 이것이바로바쿠닌의걱정이사실이었던것을증명한다.

바쿠닌은정치적행동대신에“도시와촌락노동대중의사회적이고(따라서반정치적인) 조직과힘”을주장했다. 이는“프롤레타리아트가집단적으로인터내셔널에들어와공장위원회, 수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등을조직하고, 지역적연방을통해단결”하여“스스로의해방을추구해야한다.”는의미였다. 그럼에도아나키즘은“일반적인정치자체를부정해서안된다. 부르주아계급과의투쟁이당위인이상, 정치에의참여역시당위가된다. 아나키즘은오직부르주아의지배를확립하는부르주아정치만을거부한다.”

마르크스의“프롤레타리아독재”에대해바쿠닌은두가지이유를들어반대했다. 우선, 이단어를직설적으로받아들이면, 이는소수에의한독재를의미한다. 마르크스스스로도인정했듯이, 영국을제외한모든유럽국가에서농민과수공업자들이노동대중의다수를차지했다. 이상황에서마르크스의“혁명”에대한상은다수의노동인민을배제한다. 바쿠닌은이것이“도시산업노동자들이수백만의농촌프롤레타리아트를배제하고, 결과적으로소위”인민공화국“의신민으로만드는것이새로운귀족정에지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

다음으로, 바쿠닌은새로운국가를통치하는것이전체프롤레타리아트가될수있을지의심했다. 바쿠닌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말하는바“인민의정부는인민에의해선출된소수인민에의한정부를의미한다. 소위인민대표단은, 보편선거에기초하여선출된국가지도자들은소수에의한지배가보장된전제정이라는것을숨기는기만일뿐”이라고주장했다. 레닌의체제가이를입증했다. 소비에트러시아는얼마지나지않아프롤레타리아트(에대한) 독재가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주장과는달리바쿠닌이“노동자국가”에반대했다는것은혁명을조직하거나방어하는것과는무관한것이였다. 바쿠닌은국가를분쇄하고자본주의를철폐할필요성을명확히인지하고있었다. 바쿠닌에게아나키스트적인국가의철폐는마르크스가바쿠닌에대해말한바노동대중이“무기를내려놓는것”이아니었다. 바쿠닌은“혁명을방어하기위해, 인민대중은자발적으로공동체적자경단을구성할것”이라고명확히바라보았다. 이것은“공동체의방어를위한연방”이될것이였다. 각코뮌들은“반동에맞서승리하기에충분한혁명적세력을조직할것”이고, “자기방어의목적으로이루어지는혁명의확산과조직이라는사실이혁명의승리를가져올것”이였다.

마르크스주의에대한바쿠닌의반대는권력의문제에근거하고있었다. 노동계급의해방이참된것이되기위해서는국가는파괴되어야했다. 만약“전체프롤레타리아트가정부를구성한다면, 정부도, 국가도없을것이다. 하지만만약국가가존속한다면, 여전히지배되고예속된이들은존재할수밖에없다.”그렇기에아나키스트들은“제헌의회건, 임시정부건, 소위혁명적독재건, 심지어이행기적과정의

일부로서도, 받아들이지않는다. 우리아나키스트들은혁명이대중의손에있을때에만신실하고, 진실하며, 실질적일수있다고믿는다. 그리고만약혁명이소수의지도자의손에떨어지면, 혁명은그순간반동이된다고믿는다.”

아나키스트적혁명은“혁명적”중앙정부가대중을위로부터지도하는것이아니라코뮌과노동자평의회연방에기초해야한다. 바쿠닌은집단적계급투쟁의과정은그자체로자유로운사회의기반이된다고보았다. “모든노동인민의단체들의연방적동맹이코뮌을구성할것”이며, “미래의사회조직은자유연합이나노동자연방에의해상향식으로구성되어야한다. 이는그들스스로의조합으로부터시작하여, 코뮌이되고, 지역이되고, 최종적으로전세계적연방을구성할것”이였다. 상향식위원회는(“골간조직의) 총의로부터확립되어, 언제라도그위임이철회될수있는대표단”으로구성될것이다.

혁명이만들어내는기본적인구조는투쟁속에서만들어져억압과착취에대항하는노동대중의자체적전투조직에기초해야한다. “모든곳에서의혁명은인민에의해만들어져야하고, 그최종적통제권은노동에기초한인민의자유연방에게주어져야한다. 이자유연방은혁명적대의제에의한상향식조직이어야한다.”혁명적조직은대중조직내에서“각개구성원의자연스럽고, 개인적인영향력을통해서만인민들에게영향력을발휘해야할뿐, 어떠한권력도주어서는안된다.”

물론바쿠닌의혁명에대한관점은국가를향하고있지만한것은아니었다. 바쿠닌의혁명은자본주의역시겨냥했다. 자유로운사회는“토지와생산수단, 여타의자본이전체사회의집단적자산이되고, 노동자에의해서만, 농업·산업조직에의해서만활용되는”것에기초해야한다. 그렇기에혁명의첫번째작업은노동자들이“모든노동의수단과자본과건물을쓸어내는것”이되어야한다. “정치적이면서동시에사회적이지않다면, 어떠한혁명도성공할수없기때문”이다. 그렇기에사회혁명은국가와자본주의를동시에철폐하는것이여야한다.

새롭고또자유로운사회는“아래로부터, 연합으로부터, 코뮌으로시작되는진정한인민의조직이어야한다. 그렇기에가장작은분자로부터조직을건설해야하며, 이로써위로썴아올려야한다. 연방은사회주의의정치기구가, 대중생활의자유롭고자발적인조직이되어야한다. 경제적으로, 임노예제는”토지, 생산수단, 상속재산이노동자스스로에의해, 산업·농업노동자들이자유롭게조직한연방에의해소유되고운영되는사회에서만번창하고최대잠재력을달성할“협동적생산으로대체될것이다.

이를통해“모든인류는인간성을발전시킬수있는물질적이고도덕적인수단을가지게될것이다.”바쿠닌의아나키즘은사회를변혁하고모든권위주의적사회관계를철폐하는것이다. 국가와자본주의의정신과피적본성보다삶을앞세우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정신적·도덕적·물질적측면모두에서삶과그즐거움에대한긍정적관리를옹호한다. 아나키스트들은삶을사랑하고, 그것을최대한즐거움으로자한다.”